

#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1453)의 인물됨과 문화적 기여\*

안휘준\*\*

- |                                |                      |
|--------------------------------|----------------------|
| I. 머리말                         | 3. 회화                |
| II.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의 인물됨 | 4. 조원(造園): 무계정사와 비해당 |
| 1. 왕자의 신분                      | IV. 안평대군의 학술적 기여     |
| 2. 성품과 인물됨                     | 1. 편찬                |
| III. 안평대군의 예술적 기여              | 2. 불사(佛事)            |
| 1. 문학                          | V. 맺음말               |
| 2. 서예                          |                      |

## I. 머리말

우리나라 역사상 세종대왕(世宗大王, 재위 1418~1450)을 제외하고 군왕이 아닌 신분의 인물로서 문화발전에 가장 다양하고 제일 괄목할만한 기여를 한 분을 한사람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1418~1453)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 살펴보듯이 실로 전무후무한 인물이라 하겠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부실하였다. 금년(2018)에 고려대학교의 심경호 교수가 펴 낸 역저 《안평(安平)》이 나오기 전까지는 필자가 조

\* 이 논문은 한국서예학회가 2018년 12월 8일(토) 14:00~18:00, 〈안평대군 이용의 삶과 예술: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기념〉이라는 제하에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4층 31409호실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필자가 기조강연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한국서예학회의 김응학회장장과 박병천교수에게 감사한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考古美術史學科 명예교수

선왕조 최고의 화가인 안견(安堅, 15세기)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소개한 편린적인 정보들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sup> 이러한 실정하에서 필자가 기획하고 사단법인 안평·안견 현창사업회가 안평대군 6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학술대회는 큰 자극과 도움이 되었다. 발표자로 초대된 심경호, 유영봉, 고연희, 김경임 등 네 분의 연구성과가 새 지평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2</sup> 이제 안평대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필자는 그동안 쌓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고 새로이 얻은 정보들을 수용하여 안평대군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 역사적 인물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그가 몸담아 살았던 시대의 배경<sup>3</sup>, 생애, 경력과 교유 등이 모두 중요하나 이 글에서는 안평대군의 문화적 업적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의 성품과 인물됨만을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의 인물됨

안평대군은 고귀한 왕자로 태어나(1418, 음력 9.19/양력 10.18) 호강스러운 생활을 하며 수많은 예술적, 문화적 업적을 쌓아가다가 계유정란(癸酉靖亂)으로 친형인 한 살 위의 수양대군(首陽大君, 1417~1468/세조, 재위: 1455~1468)에게 강화도 교동에서 사사되었다(1453, 음력 10.18/양력 11.18). 35년간의 그의 짧은 생애는 행(幸)과 불행이 양극을 이룬 것이었다.

### 1. 왕자의 신분

안평대군은 세종대왕(世宗大王, 1397~1450/재위: 1418~1450)과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靑川府院君 沈溫의 딸) 사이에 태어난 여덟 왕자들(문종, 세조, 안평대군, 임영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응대군) 중 셋째였다. 그는 세종대왕이 등극한지 한 달 뒤인 1418년 음력 9월 19일(양력 10월 18일)에 태어났다. 이름은 용(瑢,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

<sup>1</sup> 심경호, 『안평(安平)』(알마출판사, 2018) 및 안휘준, 『개정신판 안견과 몽유도원도』(사회평론, 2009), pp. 33-51 참조.  
<sup>2</sup> (사) 안평·안견현창사업회, 『세종조의 문화융성: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안평대군과 몽유도원도』(자료집 / 2018, 10. 18) 참조.  
<sup>3</sup> 세종조(1418~1450)를 중심으로 한 조선초기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유념할 사항들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① 유교적 문치주의(文治主義)의 융성, ②고전주의적 경향의 팽배, ③문화적 자주성의 확립, ④풍류의 적극적 향유 등은 특히 주목을 요한다. 안휘준, 위의 책, pp. 25-74 및 『조선시대 산수화 특강』(사회평론, 2015), pp. 24-41 참조.

당(匪懈堂), 낭간거사(琅玕居士), 매죽헌(梅竹軒), 천석주인(泉石主人), 시호는 장소(章昭)이다.<sup>4</sup>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호 '비해당'에 관해서는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세종대왕이 안평대군을 애껴서 하사한 당호로서 그 의미가 크고 대군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안평대군과 가장 가까웠던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이 쓴 「비해당기(匪懈堂記)」에 그 연유가 잘 적혀 있다.

정통임술년(正統壬戌年, 1442) 여름의 6월 어느날, 안평대군이 대궐에 들어가 (세종대왕을) 알현하였다. 상(임금)께서 조용히 물으시기를, “아무개의 당호(堂號)는 어찌하여 안평이라고 하는가.”라고 하셨다. 대답이 없으매 상께서는 증민지시(蒸民之詩, 백성의 시)를 읊으시고 서명(西銘), 송의 학자 장재(張載)가 서재의 서쪽 창에 걸어놓았던 명(銘)에 미쳐서 말씀하시기를 “편역을 비해(匪懈)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안평대군은 머리 숙여 절하면서 기뻐하고 놀라워했다.…… 이제 안평대군은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즐겁고 착한 마음이 지성으로부터 나와 유교의 바른 의리에 반드시 이르게 되도록 그 힘씀이 지극할 것이다. 성상께서 특히 이것을 명하신 것이다.<sup>5</sup>

이로써 1442년 6월에 세종대왕께서 안평대군의 〈안평(安平)〉이라는 당호가 이름이 안일하고 안이한 의미를 띠고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 즉 ‘부지런한’ 뜻의 비해(匪懈)로 바꾸도록 했음이 분명해진다. 세종대왕께서는 안평대군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타고난 재주와 능력을 한껏 펼치도록 독려한 것이라 하겠다.<sup>6</sup>

안평대군의 생애는 35년 밖에 안 되는 짧은 것이었지만 워낙 한 일과 겪은 일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번거로우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추려서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sup>7</sup>

4 안평대군의 ‘칭지’를 비롯한 자호가 지닌 의미와 연유에 관해서는 심경호, 앞의 책, pp. 11-12 참조.

5 朴彭年, 「匪懈堂記」 『死六臣文集』 (民族文化社, 1986), pp. 106-108. “……正統壬戌夏六月有日 安平大君入侍宸闈上從塔問曰 某之堂名云何安平 對以無 上誦蒸民之詩 且及西銘曰 宜扁以匪懈 安平拜手稽首 且喜且驚 遂徵言於禁垣 諸儒以演其旨是……今安平天資卓越 好學樂善之心 出於至誠 造次必於儒雅其勤至矣 聖上特以是命焉……”. ‘匪懈’는 주희의 『近思錄』에 나오는 ‘不愧屋漏爲無忝 存心養性爲匪懈’의 구절에서 딴 것이다. 鈴木治, 「安堅〈夢遊桃源道〉について(一)」, 『ピブリア』 第65號 (1977. 3), p. 41 및 註 16 所引.

6 안휘준, 『개정신판 안견과 몽유도원도』, pp. 36-37, 181-182 참조.

7 안평대군의 생애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는 심경호교수가 작성한 「안평대군 연보」가 가장 일목요연하고 참고가 많이 된다. 심교수의 앞의 책, pp. 1143-1155 참조.

- 1421년(만 3세)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녕대군 이종(李種)의 양자가 됨.
- 1428년(만 10세) 대광보국 안평대군(大匡輔國 安平大君)에 봉해짐.
- 1429년(만 11세) 음력 1월 20일 결혼함. 신부는 연일 정씨 정연(鄭淵)의 딸(9세). 인왕산 밑 수성궁(水聲宮)에 살기 시작함.
- 1430년(만 12세) 음력 5월 17일에 왕자로서는 처음으로 진평대군(수양대군)과 함께 성균관 종학에 입학함. 같은 해 12월 3일에 친형제들 및 삼촌들과 함께 정1품에 임명됨.
- 1437년(만 19세) 전보다 50결이 줄어든 250결의 토지를 다른 대군들과 함께 받음.<sup>8</sup>
- 1438년(만 20세) 함경도에 새로 설치된 4진(鎭) 중에서 안평대군은 회령을 담당, 관장하였음.
- 1439년(만 21세) 장남 이우직(李友直) 출생. 이후 차남 이우량(李友諫)과 딸 무심(無心)을 둬.<sup>9</sup>
- 1441년(만 23세) 정월. 진양대군과 함께 성균관 종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세종대왕의 지시에 따라 집현전 학사들의 교육을 받기 시작함.
- 1453년(만 35세) 음력 4월 23일(양력 5월 31일) 안평대군의 부인 정씨 사망. 같은 해 음력 10월 18일(양력 11월 18일) 안평대군이 강화도에서 사사됨. 같은 달 10월 25일에 수양대군이 안평대군과 그의 모사 이현로(李賢老, ?~1453)의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림. 문화적 재앙임.
- 1455년 8월말에 안평대군의 장남 이우직 진도에 유배 중 사사됨. 같은 해 음력 8월 21일에 안평대군의 딸 무심은 권람의 비첩이 됨.
- 1747년(영조 23) 안평대군의 지위가 복관됨.
- 1759년(영조 35) 장소(章昭)라는 시호가 안평대군에게 부여됨.

이상 안평대군의 삶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들만 적어보았다. 안평대군이 참여했거나 펼친 문화예술 분야의 행적은 매우 많고 다양하여 번거로움을 피해 뒤로 미루고자 한다. 여기에서 빠진 문화예술 분야의 행적과 업적들은 다음 장에서 논의되거나 언급될 것이다. 안평대군의 삶은 왕자로서의 부귀영화와 문화예술계의 총수로서의 눈부신 업적이 수양대군과의 정

<sup>8</sup> 1결(結)의 땅은 1결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을 뜻하고, 1결의 곡식은 300두를 의미하므로 안평대군은 다른 대군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7만 5천두의 곡식을 매년 받게 된 셈이었다. 이는 구글에 나와 있는 학술정보에 의한 필자의 계산이다. 구글을 귀찮게준 서울대의 이태진 명예교수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sup>9</sup> 안평대군의 모든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심경호, 앞의 책, pp. 65-68 참조.

쟁에서의 패배자로서 맞은 비참한 말로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 것이었다. 왕실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과 문화예술분야의 허다한 일들에 가장 가까이 제일 빈번하게 함께 했던 한 살 터우리 형제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사이의 정쟁과 비극적 종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 교훈이라 하겠다.

## 2. 성품과 인물됨

안평대군의 성품이나 인물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쓴 「비해당진찬(匪懈堂眞贊)」의 끝부분이다.<sup>10</sup> 안평대군은 25세 때(1442) 안견으로 하여금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던 것인데 7년이 지난 뒤(1449)에 신숙주에게 찬문을 짓게 하였다. 이 찬문의 말미에 적힌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특한 자태는 세상에 뛰어나고  
기우(氣宇)는 높고 우람하다.  
빛이 얼굴에 환하고 등에 가득함은  
덕이 무르익은 결과로다.  
연세는 방년이요  
힘은 강성하시니  
부디 멈추지 말고  
하늘의 운행을 본받는다면  
영구히 다복을 누리시리.<sup>11</sup>

20대의 안평대군은 자태가 뛰어나고 기품이 높으며 우람했고 당당하고 힘이 센 미남형 대장부이었으리라는 느낌이 든다. 예술만 좋아한 문약한 인물만은 아니었을 듯하다. 만 20세에 함경도에 새로 설치되었던 4진 중에서 회령 지역을 맡았던 인물이었음이 상기된다.

이와 함께 안평대군의 또 다른 최측근이었던 박팽년의 발언이 관심을 끈다. 그는 「유화시권

<sup>10</sup> 申叔舟, 『保閑齋集』 卷16, 「匪懈堂眞贊」 “英姿絕世 器宇夔峻 維粹維益 乃德之潤 維年之芳 維力之強 願言不息 天行是式 永膺多福”

<sup>11</sup> 한글 번역은 심경호, 심교수의 앞의 책, p. 128 참조. 원문은 위의 주 참조.

후서(榴花詩卷後序)라는 글에서 “비해당은 총명하고 학문이 날로 새로워져 육경(六經)의 업적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시에 있어서는 더욱 깊었다.”라고 적었다.<sup>12</sup> 안평대군이 두뇌가 명석하고 학문과 시를 열심히 공부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상 신숙주와 박팽년의 기록들을 합쳐서 생각하면 안평대군은 총명하면서도 짙은 문사적, 예술가적 성향과 함께 어느 정도의 무사적 기질도 겸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안평대군의 성품과 사람됨에 대한 당시 일부 반대파 사람들의 평가는 다소 편견이 깃든 감이 있는데 그의 책사였던 이현로에 관한 「단종실록(端宗實錄)」의 기록에서도 엿보인다.

이현로는 사람됨이 경박하고 행동거지가 가볍고 재주를 지니고 있어 교만하며 무릇 그 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려 하지 않았다. 지리(地理)와 복서(卜筮) 관계의 책들은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더욱이 시구(詩句)와 글씨로 자부하였다. 애초에 용(瑢, 안평대군)은 시문과 서화를 즐기고 소예(小藝)에 재주가 많아 세종조에 있을 때부터 권세를 불러 벼골기를 좋아하여 간사한 소인배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이현로는 더욱 그러한 자였다.<sup>13</sup>

안평대군과 이현로는 성품, 기호, 재주, 학문과 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 등에서 서로 유사하고 상통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안평대군의 인물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기록은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라 하겠다.

비해당은 왕자로서 학문을 좋아하고 더욱 시문에 뛰어났다. 서법(書法)은 뛰어나 천하에 제일이 되었고 또 그림과 음악을 잘 하였다. 성격은 또한 들뜨고 방탕하며 옛 것을 좋아하고 경치를 탐하였다. 북문 밖에 무이정사(武夷精舍, 무계정사(武夷精舍)의 오기로 보임)를 짓고 또 남호에 임하여 담담정(澹澹亭)을 지었다. 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문사들을 불러 모아 12경시(景詩)를 짓고 또 48영(詠)을 지었다. 혹은 밤에 등불을 켜고 얘기하고, 혹은 달이 뜰 때 뱃놀이를 하며, 혹은 도박을 하거나 음악을 계속하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희희덕거리기도 하였다. 일시의 명유(名

<sup>12</sup> 朴彭年, 「榴花詩卷後敘」, 『死六臣文集』, 69. “……匪懈堂天性聰明 學問日新 六籍之蘊 靡不研究 而其於詩也尤深……”

<sup>13</sup> 「端宗實錄」卷3, 卽位年壬申(1452), 閏9月 乙丑條(『朝鮮王朝實錄』6卷, p540 上右). “……(李)賢老爲人 輕佻薄行 恃才驕矜 凡其技藝 皆不欲下人 地理卜筮之書 無不講究 尤以詩句書字自負 初瑒喜詩文書畫 多能小藝 自在世宗朝 招權好施 儉小多附之 賢老乃其尤者也”

儒)로서 그와 교제를 갖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잡업에 종사하는 무퇴한 사람들도 또한 그에게 돌아갔다. 바둑알은 모두 옥을 사용했고 금니(金泥)를 써서 글씨를 썼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명하여 비단을 짜게 하고 붓을 들어 휘둘러서 해서(楷書)와 초서(草書)를 마구 쓰기도 하였다. 그의 글씨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석에서 이를 들어주었다. 일들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sup>14</sup>

안평대군의 호학(好學), 시·서·화와 음악에 대한 사랑과 재주, 부방한 성격, 호고(好古), 풍류, 애주(愛酒), 민주적 사고와 신분을 따지지 않는 폭넓은 교류, 사치스러운 등의 다양한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각종 예술을 향유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참된 문화인이었음이 잘 드러난다.

안평대군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주목된다. 대군의 막내 동생인 영웅대군(永膺大君, 1424~1467)의 후손 이선(李選, 1632~1692)이 남긴 「영릉육대군전(英陵六大君傳)」이 그것이다.

하늘이 낸 바탕이 빼어나고 의표(儀表, 풍모)가 우람하며, 경전과 역사에 박학한데다가 아울러 내전(불경)에도 통하여, 문장이 일찍 이루어졌다. 필법은 조자양(趙子昂, 조맹부)과 어깨를 나란히 하되 그보다 날아 움직이는 듯했다. 나머지 전서, 주서(籀書), 팔법(팔분, 예서)에 모두 정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한 화도(畵圖)와 금슬(琴瑟)의 기예를 잘했다. 일찍이 왕명을 받들어 여러 학사들과 더불어 《당송팔가시》를 편집하여 올렸다. 또 손수 백낙천(白樂天, 백거이)의 삼체시(三體詩), 매성유(梅聖俞, 매요신)의 《완릉집(宛陵集)》을 선별하여, 그것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다. 세종은 공이 평소 거처하는 곳의 당에 이름이 없다는 말을 들으시고 비해(匪懈)라는 당호를 하사했다. 그러자 공은 당시의 여러 문인들에게 부탁하여 그 일을 노래하고 읊게 했다. 무계정사(武溪精舍)를 북교(北郊)에 짓고, 또 담담정(淡淡亭)을 서호(마포)가에 세우고는 서적 1만권을 소장해 두고 그곳을 왕래하면서 유람했다. 그 문장과 풍류가 당시에 휘황하게 빛났으며, 문인과 명사들 가운데 그와 교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경태(景泰) 원년 경오(1450)에 중국 사신 예겸(倪謙)과 사마순(司馬恂)이 모화관에 있을 때, 공이 장난삼아 쓴 ‘범옹책(泛翁策)’이란 세 글자를 우연히 보고는 크게 경탄하고 기이하게 여겨, 다시 필적을 청하였다. 공이 하룻밤

<sup>14</sup> 成俔, 「慵齋叢話」, “……匪懈堂以王子好學 尤長於詩文 書法奇絕 爲天下第一 又善畵圖琴瑟之技 性又浮誕 好古貪勝 作武夷精舍於北門外 又臨南湖 作淡淡亭 藏書萬卷 招聚文士 作十二景詩 又作四十八詠 或張燈夜話 或乘月泛舟 或占聯或博奕 絲竹不絕 崇飲醉謔 一時名儒無不締交 無賴雜業之人 亦多歸之 棋局與子皆用玉 亦用金泥塗字 又令人織紬緞 卽縱筆揮灑 眞草亂行 人有求者 卽舉與之 事多類此……”

에 수 백 종이에 붓으로 써서 주자, 두 사신은 대단히 칭찬하면서 “지금 천하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는 진(陳) 아무개 학사가 최고인데, (안평대군의) 글씨와 견준다면 한참 못 미친다.”라 하고는 시를 지어 사레했다. 상계서 공에게 명하여 “이 시는 참으로 전할 만하니, 민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공이 화운(차운)을 사대부들에게 두루 구하려 했으나 미처 그러지를 못하고 있던 참에, 얼마 안 되어 상계서 서거하셨다. 이해 겨울 명나라 태감 윤봉(尹鳳)이 조칙을 받들고 와서, 앞서의 예겸과 사마순 두 사신이 중국에 돌아가 공의 글씨를 헌정했더니 천자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즉시 돌에 새겨 널리 전하게 했다고 알고는, 또한 흰 비단에 글씨를 받아가지고 갔다. 이에 공의 예술이 해내(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김절재(金節齋, 김중서), 박평양(朴平陽, 박평년), 신고령(申高靈, 신숙주)이 시문을 지어 장식했다. (중략) 공은 연수를 고작 36세밖에 얻지 못했다. 부인은 연일(延日) 정씨(鄭氏)로, 병조판서 증 좌의정 정연(鄭淵)의 따님이다. 두 아들을 두었다. 장남 우직(友直)은 의춘군(宜春君)으로, 우의정 남지(南智)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계유년에 진도로 유배되어 죽었다. 차남 우량(友諒)은 덕양정(德陽正)으로, 심씨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역시 연좌되어 죽었다. 둘 다 후사가 없다. 공이 쓴 영릉(英陵, 세종릉) 비는 필력을 한껏 다 드러냈으나 양화를 입은 후 조정에서 문질러 없앴으므로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 오로지 안효공 심온(沈溫, 안평대군의 외조부)의 묘비문 액면에 팔법(팔분체)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다. 와방의 누관이나 사찰에는 아직도 공이 쓴 편액이 많이 남아 있다. 친필로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한 치 한 자의 작은 종이나 폭이라 해도 어느 것이든 보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세상에 전하는 묵본(墨本)도 한돌이 아니지만 월정사의 수록재 재문이 가장 생동적이다. 시문은 더욱 흠어지고 없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종실 낭선군 이우(李侯)가 약간을 수습하여 집에 두고 있다.<sup>15</sup>

글의 내용이 앞에서 소개한 다른 기록들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중국 사신들과의 관계, 가족관계, 유작들에 대한 언급 등이 차이를 드러낸다. 왕가의 정보를 외부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던 덕택인지 모르겠다.

이상 소개한 몇 가지 기록들 중에서 안평대군의 인물됨과 관련되는 내용들만을 뽑아서 정리해 보면 대충 아래와 같다.

<sup>15</sup> 심경호, 『안평(安平)』, pp. 46-48 所引

- 1) 자태와 바탕이 뛰어났다.
- 2) 기품이 높고 풍모가 우람했다.
- 3) 얼굴은 흰했다.
- 4) 힘이 강했다(維力之強).
- 5) 천성이 총명했다(두뇌가 명석했다).
- 6) 성격은 들뜨고 방탕했다.
- 7) 베풀기를 좋아했다.
- 8) 옛것을 좋아했다.
- 9) 산수를 탐하였다.
- 10) 풍류를 즐겼다(달이 뜰 때 뱃놀이도 하였다).
- 11) 음주와 도박도 즐겼다.
- 12) 사치스러웠다. 바둑알은 모두 옥을 사용하였고 금니(金泥)로 글씨를 썼다.
- 13) 시·서·화에 뛰어났고(三絶) 음악을 즐겼다. 소예(小藝)에 재주가 많았다. 특히 서예에서는 일인자가 되었고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다.
- 14) 자신의 글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즉석에서 써주었다.
- 15) 문장에 뛰어났다.
- 16) 학문을 좋아했고 육경(六經)등을 널리 연구하였다. 경전과 역사에 박학했고 특히 시학(詩學)에 뛰어났다.
- 17) 불경과 불교에도 밝았다.
- 18) 책 1만권을 소장하였다(서화수장가이기도 하였다.).
- 19) 비해당(匪懈堂) 이외에 북쪽에 무계정사(武夷精舍)와 남쪽에 담담정(淡淡亭)을 지어 세 곁 집과 교유의 본거지로 삼았다(비해당과 무계정사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다. ‘조원(造園) 예술가적 면모가 엿보인다.).
- 20) 명유(名儒)들은 물론 잡업에 종사하는 무뢰한들과도 어울렸다. 소인배들이 많이 따랐다.

### Ⅲ. 안평대군의 예술적 기여

안평대군은 불과 35년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세종조의 문화계 총수로서 그가 간여하고 기여한 분야는 실로 다양했고 남긴 종적도 엄청 많아서 한 사람의 연구자가 모두 깊이 있게 살

펴보는 것은 지난하다. 관련된 기록들도 거의 대부분 구체적이거나 입체적이지 않아서 깊이 있는 연구를 어렵게 한다. 안평대군이 간여했던 시를 위시한 문학, 서예 및 회화와 서화수집, 음악, 건축과 조원 등의 예술은 물론 편찬과 간행, 주자(鑄字), 각종 불사(佛事) 등 학문적인 사항들은 각각의 전문분야 전문가들이 각기 연구를 적극화해야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초보적인 생각을 짚어보고 골격을 구성해 보는 것이라 하겠다.

## 1. 문학

안평대군은 거의 모든 예술을 애호했고 또 그 자신이 재능을 발휘하였지만, 그를 가장 돋보이게 한 것은 그의 시와 서예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시는 사성(四聲)에 따라 운(韻)을 맞추어 지어야 하므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평대군은 자유자재로 지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사백(詞伯) 또는 사종(詞宗)으로 칭송되었고, 스스로도 시가(詩家)라 자부하였으며, 또한 동갑인 성삼문, 한 살 위인 이개와 박팽년 같은 집현전 학사들과 이현로 등을 문하(門下)라고 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16</sup>

안평대군의 뛰어난 시재(詩才)는 한 살 윗 형인 수양대군의 시샘과 열등의식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sup>17</sup> 계유정란 때 수양대군이 한 살 아래인 친동생 안평대군과 그의 자녀들에게 내린 혹독한 형벌은 단순히 정적으로만 여긴 조처였을까 의문이 든다. 중국 조조(曹操)의 큰아들 조비(曹丕)가 시에 뛰어났던 동생 조식(曹植)에게 지녔던 강한 열등감이 연계되어 상기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모르겠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키면서 소중한 시문서화가 가득했을 안평대군의 집을 지체 없이 태워버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안평대군의 시문집이 전해지지 않는 것도 이때 불탔기 때문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안평대군의 시집은 비록 전해지지 않지만 그의 시들은 「무계정사잡영5장(武溪精舍雜詠)」을 비롯하여<sup>18</sup>, 여기저기에서 산견된다고 하므로 누군가 문학사 전공자가 나서서 그것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그의 시가 지닌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일이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안평대군은 스스로 혼자서 시를 짓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가 주도하는 문화적인 일들

<sup>16</sup> 심경호, 위의 책, p. 14 참조.

<sup>17</sup> 위의 책, pp. 708-712 참조.

<sup>18</sup> 위의 책, pp. 708-712 참조.

에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주변의 문사들을 끌어들이 시를 짓게 함으로써 당시 시단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 점이 그가 예단의 총수로서 이론 팔목할만한 기여라고 믿어진다. 1447년에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를 안견(安堅)을 시켜서 그리게 한 다음 21명(승려 1명 포함)의 시인들로 하여금 시를 짓고 직접 자필로 쓰게 하였던 일이나, 그보다 5년 앞서 '소상8경(瀟湘八景)'을 주제로 화원에게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17명의 인사들에게는 찬시를 짓게 하여 「비해당소상팔경시(匪解堂瀟湘八景詩)」를 만들었던 일, 자신의 거처였던 비해당과 주변의 48가지의 경물들을 읊게 한 '비해당 48영'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sup>19</sup> 수많은 문사들과 화원이 동원되어 시·서·화 3절을 이룬 이러한 일들은 안평대군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안평대군은 중국의 대표적 시인들과 그들의 시를 국내에 소개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당대와 송대의 유명한 시인들인 이백(李白)·두보(杜甫)·위응물(韋應物)·유종원(柳宗元)·구양수(歐陽修)·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황정견(黃庭堅) 등 여덟 명의 시를 선정하여 『당송팔가시선(唐宋八家詩選)』을 엮어내고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sup>20</sup> 오언율시, 칠언율시, 칠언절구의 시들이 모여져 있어서 안평대군 주변의 문사들부터 많이 참고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고전주의적 문학의 일면이 엿보인다.

안평대군은 시만이 아니라 다른 글들도 많이 써서 당시의 문학에 많은 자극을 준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안견을 시켜 그린 「몽유도원도(도 3)」를 위해 쓴 「몽유도원기(夢遊桃源記)」 또는 「몽유도원도발(跋)」이 가장 대표적이다(도 2 참조)<sup>21</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묘년(丁卯年) 4월 20일 밤에 바야흐로 자리에 누우니, 정신이 아른하여 잠이 깊이 들므로 꿈도 꾸게 되었다. 그래서 인수(仁叟, 박팽년)와 더불어 한 곳 산 아래에 당도하니, 층층의 뿔부리가 우뚝 솟아나고, 깊은 골짜기가 그윽한 채 아름다우며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있고, 오솔길이 숲밖에 다다르자, 여러 갈래가 나서 서성대며 어디로 갈 바를 몰랐었다. 한사람을 만나니 산관야복으로 길이 읊하며, 나한테 이르기를 “이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휘어져 골짜기에 들어가면 도원이외다.”하므로 나는 인수와 함께 말을 채찍질하여 찾아가니, 산벼랑이 울퉁불퉁하고 나

<sup>19</sup> 안輝濬·李炳漢, 『安堅과 夢遊桃源圖』(도서출판 예경, 1993); 문화재청, 『비해당소상팔경시첩』(2008)(임재완의 번역, 안휘준·이완우·안장리의 논고, 임창순의 해설이 실려 있음); 유영봉 역주, 『다섯 사람의 집현전 학사가 안평대군에게 바친 詩』(도서출판 다운샘, 2004) 참조.

<sup>20</sup> 심경호, 『안평(安平)』, pp. 425-437 참조.

<sup>21</sup> 글의 제목에 관해서는 고연희, 「安平大君의 夢遊桃源, 그 착상과 결실 - 「몽유도원기」와 「몽유도원도 제찬」을 통해 본安平大君-」, 안평·안견현장사업회, 앞의 자료집(본고 주2), p. 41, 주1 참조.

무늬가 뽀뽀하며, 시냇길은 돌고 돌아서 거의 백 굽이로 휘어져 사람을 홀리게 한다.

그 골짜기에 들어가니 마을이 넓게 트여 2, 3리쯤 될 듯하며 사방의 산이 바람벽처럼 치솟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데, 멀고 가까운 도화숲이 어리비치어 붉은 놀이 떼오르고, 또 대나무숲과 초가집이 있는데 싸리문은 반쯤 닫히고 흙담은 이미 무너졌으며 닭과 새와 소와 말은 없고, 앞 시내에 오직 조각배가 있어 물결을 따라 오락가락하니, 정경이 소슬하여 신선의 마을과 같았다. 이에 주저하며 둘러보기를 오래 하고 인수한테 이르기를 “바위에다 서까래를 걸치고 골짜기를 뚫어 집을 지었다.”더니, 어찌 이를 두고 이름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도원동이다.”라고 하였다. 곁에 두어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정부(貞父, 최항)·범옹(泛翁, 신숙주)등인데, 함께 시운을 지은 자들이다. 서로 짚신감발을 하고 오르내리며 실컷 구경하다가 문득 깨었다.

아이! 통도(通都)와 대읍(大邑)은 진실로 변화한 벼슬아치의 노니는 곳이요, 깊은 골짜기와 깎아지른 언덕은 유잠(幽潛)한 은자의 깃드는 곳이다. 이리므로 몸에 청자(靑紫)가 얹힌 자는 족적이 산림에 다다를 수 없고, 천석(泉石)으로 성정을 도야하는 자는 꿈에도 조정을 그리지 않나니 대개 정적이고 조급함이 길이 다른 것은 이치의 필연이다. 옛 사람의 말에 “낮에 한 일이 밤에 꿈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대궐 안에 몸을 의탁하여 밤낮으로 왕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어찌 꿈이 산림에 이르렀으며 나의 좋아하는 친구가 하도 많은데 어찌 반드시 도원에 노닐면서 이 두어 사람만 동행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 천성이 유벽한 것을 즐겨 본시 천석의 회포를 지냈고, 또 이 두어 분과 더불어 사귀어 특히 두터웠던 까닭에 이렇게 된 것인 듯하다.

이제 가도(可度, 안전)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였으나, 다만 옛날 말한 그 도원도 역시 이와 같았는지는 모르겠다. 훗날 보는 자가 옛 그림을 구해서 내 꿈과 비교한다면 반드시 가부의 말이 있을 것이다. 꿈 깬 뒤 3일 만에 그림이 완성되었기로 비해당(匪懈堂)의 매죽헌(梅竹軒)에서 이 글을 쓴다.<sup>22</sup>

<sup>22</sup> 번역은 劉復烈, 『韓國繪畫大觀』(文教院, 1969) pp.65-66 및 안휘준·이병한 『安堅과 夢遊桃源圖』(예경, 1993), pp. 164-167의 이병한 번역문 참조. 原文은 다음과 같다. “歲丁卯四月二十日夜 余方就枕 精神蓬鬆 睡之熟也 夢亦至焉 忽與仁叟(朴愷年)至一山下 層巒深壑 崿嶽窈窕 有桃花數十株 微徑抵林表而分岐 徬徨竚立 莫適所之 遇一人山冠野服 長揖而謂余曰 從此徑以北 入谷則桃源也 余與仁叟 策馬尋之 崖磴卓犖 林莽蒼鬱 溪回路轉 蓋百折而欲迷 入其谷則洞中曠豁 可二·三里 四山壁立 雲霧掩靄 遠近桃林 照暎蒸霞 又有竹林茅宇 柴扃半開 土砌已沈 無鷄犬牛馬 前川唯有扁舟 隨浪游移 情境蕭條 若仙府然 於是踟躕瞻眺者久之 謂仁叟曰 架巖鑿谷 開家室 豈不是與 實桃源洞也 傍有數人在後 乃貞父(崔恒)·泛翁(申叔舟)等 同撰韻者也 相與整履陟降 顧盼自適 忽覺焉 嗚呼通都大邑 固繁華名宦之所遊 窮谷斷崖 乃幽潛隱者之所處 是故 紆身靑紫者 迹不到山林 陶靑泉石者 夢不想巖廊 蓋靜殊途理之必然也 古人有言曰 畫之所爲 夜之所夢 余托身禁掖 夙夜從事 何其夢之到於山林耶 又何到而至於桃源耶 余之相好者多矣 何必遊桃源 而從是數子乎 意其性好幽僻 素有泉石之懷 而與數子者 交道尤厚 故致此也 於是 令可度作

이 글은 조선왕조 최고의 화가 안견이 그린 최상의 걸작 「몽유도원도」의 제작경위를 밝혀 주는 기록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평대군의 도가적 은둔사상을 질게 내비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끈다. 내용의 전개가 매우 논리적이고 매끄러우며, 분위기의 묘사가 아주 아련하고 환상적이어서 훌륭한 글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이 지닌 더 이상의 문학적 특징과 그 의의는 문학사가 또는 연구자들이 밝힐 일이라 하겠다.<sup>23</sup> 안평대군의 기타 문학작품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다.

## 2. 서예

안평대군이 관심을 가지고 기여한 여러 예술분야들 중에서 그를 국내외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역시 그의 서예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글씨는 당시의 문사들은 물론, 후대의 정조대왕까지도 조선왕조 최고의 명필로 꼽았을 정도로 이구동성으로 칭송되었다. 그중에서 성현이 그의 『용재총화』에 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일 주목된다.

안평의 글씨는 오로지 자양[子昂, 조맹부(趙孟頫)]을 방하였으나 그 호매함은 서로 상하를 겨루었다. 늙름하고 날아 움직일 듯한 뜻이 있다. 예시강[倪侍講, 겸(謙)]이 일찍이 (명의)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편제(篇題)의 두 글자를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비범한 솜씨가 쓴 글씨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긴요히 만나보고 싶사옵니다.”라고 하였다. 상(上, 임금)께서 안평에게 명하여 그를 찾아가 보도록 하였다. 예시강이 안평대군의 필적을 우러러 말하기를 “요즘 진학사[陳學士, 겸(謙)]가 글씨를 잘 써서 중국에서 이름을 날리지만 왕자께 비하면 미치지 못하옵니다.”라고 하였다. 더욱 예를 갖추면서 글씨를 받아 가지고 갔다. 그 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글씨를 사가지고 오면 안평대군의 글씨인 경우가 많았다. 안평대군이 (이들) 크게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해 하였다.<sup>24</sup>

---

圖 但未知古之所謂桃源者 亦若是乎 後之觀者求古圖較我夢 必有言也 夢後三日 圖既成 書于匪懈堂之梅竹軒”. 그리고 이 글에 대한 연구로는 고연희, 앞의 논문 참조. 이 밖에 김은미, 「몽유도원도 제작의 도원관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0집 (1989), pp. 489-510 참조.

<sup>23</sup> 이종목, 「안평대군의 문학활동 연구」, 『震檀學報』 제93 (2002. 6), pp. 257-275; 심경호, 앞의 책 참조.

<sup>24</sup> 成倪, 『慵齋叢話』, “……安平之書 專倣子昂 而其豪邁相上下 凜凜有飛動意 倪侍講嘗奉使到國 見篇題二字曰 此非凡手所書 吾欲要見此人 上命安平往見之 侍講慕其筆跡曰 今陳學士善書 擅名中國 然比王子則不及也 益加禮貌 遂受書而去 其後我國人買書中國而來 乃其手跡也 安平大喜自得……”

비슷한 내용이 『세종실록』에도 적혀있다. 수양대군과 함께 태평관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위해 주연을 베풀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명사(明使) 예겸은 안평대군에게 글씨를 요청하고 거듭 탄성하며 말하기를 ‘저희 나라의 진검이 글씨로써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데 필세가 힘차고 발랄하지만 뛰어남(특이함)은 이에 미치지 못하옵니다. 참으로 송설옹(松雪翁, 조맹부)의 삼매(三昧)를 얻은 글씨입니다.’라고 하면서 각기 시를 지어 감사하였던 것이다.”<sup>25</sup> 당시 안평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행서와 초서 수백 장을 써서 중국 사신들에게 주었고, 이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작품을 얻게 되었음을 크게 기뻐했으며 또한 그 빠른 속도를 신기해하면서 각기 시를 지어 감사하였다. 이 사실과 그 경위는 박팽년의 『제예내한사마우사양천사중비해당시첩(題倪內翰司馬右史兩天使贈匪懈堂詩帖)』이라는 글에 소상하게 적혀 있다.<sup>26</sup>

예겸과 사마순은 이 때 구해 간 안평대군의 글씨를 명의 황제에게 바쳤는데 이 때 황제는 “참으로 좋도다. 진정으로 이것은 조자양(趙子昂, 조맹부)의 서체로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sup>27</sup>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첫째, 안평대군이 조맹부의 서체를 따랐음을 분명히 한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안평대군은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살려서 대성한 인물임을 구안자(具眼者)이면 누구나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안평대군은 당·송대의 고전주의의 문화를 우선시했던 인물인데 왜 원대의 조맹부 서체를 바탕으로 삼았던 것일까 의문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조맹부가 중국의 서성이라 신봉되는 왕희지의 서체를 계승했던 사실과 송설체가 이미 고려 말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던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안평대군은 전대의 문화와 예술을 계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은 안평대군의 기호나 미의식이 조맹부의 송설체를 좋아했던 점이라 여겨진다. 다음에 살펴볼 안평대군의 수화수장품 중에 조맹부의 행서가 무려 26점이나 포함되어 있던 것은 그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

둘째, 안평대군은 전서(篆書), 예서(隸書), 해서(楷書)보다는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를 훨

<sup>25</sup> 『世宗實錄』卷127, 32年 庚午(1450), 閏1月 丙辰條(『朝鮮王朝實錄』5卷, p. 168 下右), “……首陽大君代行溫斟宴于太平館 及安平大君行酒 使臣曰 敢請妙筆 傳諸中國後大君書數十幅 令宗簿判官黃義軒 與使臣嘆賞不已曰 國朝陳謙以書名天下 道勁精彩 殊不及此 真得松雪翁之三昧者也 各賦詩以謝……”

<sup>26</sup> 朴彭年, 『題倪內翰司馬右史兩天使贈匪懈堂詩帖』, 『死六臣文集』(民族文化社, 1968), pp. 24~26. “……皇明景泰元年倪內翰謙司馬右史恂奉詔在館……翌日回宴面請匪懈顯得妙跡 播之中國 匪懈一夜間揮真行草數百紙以送 兩使大喜過望 又神其速 各賦詩以謝……”

<sup>27</sup> 『文宗實錄』卷3, 卽位年庚午(1450), 8月 丙子條(『朝鮮王朝實錄』6卷, pp. 267 下左~263 上右), “……又倪謙司馬恂齋安平手書以獻 皇帝曰 甚善 正是趙子昂體也 稱贊不置……”

씬 더 자주 썼던 것으로 믿어진다. 자신의 성격, 미의식, 예술성을 구애받지 않고 드러내는데 좋고 자신의 글씨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재빨리 수응(酬應)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아주 다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글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써주었고 하룻밤 사이에 행서와 초서를 수백 장이나 썼다는 얘기는 그 가능성을 말해준다. 약간 과장되었다 해도 다작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게 여겨진다.

넷째, 안평대군은 통이 크고 마음이 넉넉하게 열려 있었고 다소간 자기 현시적인 측면도 있었던 듯하다. 민주적인 사고의 소유자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왕자의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만성, 배타성, 폐쇄성 등이 어디에서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체력이 강했던 인물로 판단된다. 체력이 약하면 다작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신숙주가 「비해당진찬」에서 안평대군에 대하여 적으면서 “힘이 강성하다(維力之強).”라고 한 것이 수궁이 된다. 예술만 사랑한 문약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다시 판단된다.

여섯째, 안평대군의 서예작품과 그의 서예에 대한 높은 평가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의 사절단을 통하여 직접 중국의 서단 및 황실에 까지 전해졌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서예를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셈이라 하겠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중국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었고 그 중의 일부는 국내로 매입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안평대군의 뛰어난 서예는 당시의 사대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후대의 서예가들에게 높은 격조의 범본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안평대군은 생전에 왕성하게 다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전해지는 진작은 지극히 드물다.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표준작은 「몽유도원도」에 곁들여져 있는 행서체의 유려한 제목 글씨 「夢遊桃源圖」와 해서체의 단정하고 격조 높은 「몽유도원기」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도 1, 2). 이 작품들은 한국 서예의 최고봉이라 할만하다. 이밖에 안평대군의 서예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연구와 규명이 요구된다.<sup>28</sup>

서예와 관련하여 안평대군은 중국의 서첩들도 소장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그가 문종의 즉위년(1450)에 문종에게 역대제왕명현집고첩(歷代帝王名賢集古帖), 왕희지진행초삼체(王羲之眞行草三體), 조자양진초천자(趙子昂眞草千字) 등의 서법판본(書法板本)을 바쳤던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sup>29</sup> 이런 서첩들이 그의 공부와 서체 형성에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sup>28</sup> 안평대군의 서예에 관해서는 이완우, 「안평대군 李瑿의 문예활동과 서예」, 『美術史學研究』 제246·247호 (2005), pp. 73-115; 안평대군의 전칭작을 포함한 목록 「안평대군 유묵과 모본」은 심경호, 앞의 책, pp. 774-779 참조.

<sup>29</sup> 「文宗實錄」卷4, 卽位年庚午(1450), 11月 庚午條(『朝鮮王朝實錄』6卷, p 316 上左). “……安平大君瑿 進歷代帝王



도 1 안평대군, 몽유도원도 제첩(夢遊桃源圖 題簽)



도 2 안평대군, 몽유도원기(夢遊桃源記)

### 3. 회화

안평대군은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면서 그림도 그렸던 것으로 전해지나 그의 작품은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화풍을 구사하였으며 격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길이 없다. 주변 인물들도 그의 시와 서예에 관해서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여러 일들을 적으면서도 안평대군의 그림에 관해서만은 일언반구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이 없다. 아마도 그의 곁에 안견 같은 거장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될 뿐이다.

안평대군이 서예와 함께 그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즉 신숙주가 자신의 문집인 『보한재집(保閑齋集)』 권 14에 실은 「화기(畫記)」의 앞부분에서 밝힌 안평대군의 얘기는 아래와 같다.

비해당은 서화를 사랑하여 누가 조그마한 쪼가리라도 가지고 있다고 들으면 반드시 후한 값으로 샀으며 그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표구를 하여 소장하였다. 어느 날 이것들을 모두 꺼내어 나(신숙주)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성정이 이것들을 좋아하는데 이것 역시 병이오, 열심히 찾고 널리 찾기를 10여년 한 후에 이만치 얻었소. 하야! 물건의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때가 있으며 모여지고 흩어짐이 운수가 있으니 대저 오늘의 이름이 다시 내일의 무너짐이 되고 그 모음과 흩어짐이 또한 어쩔 수 없게 될는지 어찌 알랴.”라고 하였다.<sup>30</sup>

名賢集古帖 王羲之眞行草三體 趙子昂眞草千字等 書法板本 命付校書館 許人模印……”

<sup>30</sup> 申叔舟, 『保閑齋集』卷十四「畫記」, “……匪懈堂愛書畫 聞人有尺牋片素 必厚購之 擇其善者 粧潢而藏之 一日 悉出而示叔舟曰 余性好是 是亦病也 窮探廣搜十餘年 而後得有是 嘻 物之成毀有時 聚散有數 安知夫今日之成 復爲後日之毀 而其聚與散 亦不可必矣……”

안평대군이 얼마나 서화를 좋아했는지, 또 아끼는 만큼 그 수집품의 장래에 대하여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잘 드러난다. 만 17세경인 1435년경부터 이 「화기」가 쓰여진 만 27세 때인 1445년까지의 10여 년간에 이루어진 것임도 알게 된다. 이 기록에 적힌 소장품의 내용은 안건의 작품 30점을 포함하여 동진(東晉)의 고개지(顧愷之)의 작품을 위시한 222축(軸)의 중국 역대의 서화들이었다(표1 참조). 즉, 안건의 작품 30점과 일본 승려 철관(鐵關)의 4점을 제외하면 188점이 모두 중국의 역대 서화들이었다.<sup>31</sup>

안평대군은 1445년 이후의 마지막 8년 동안에도 수집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알 길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소장품 전체의 행방도 알려져 있지 않다. 계유정란 때 수양대군에 의해 안평대군의 집이 불태워졌을 때 회진되었거나 압수되어 막내 동생 영응대군에게 넘겨졌던 것은 아닐까 막연히 추측될 뿐이다.

안평대군의 수집품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컬렉션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건이 거장으로 성장하는데 큰 참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안평대군은 안건을 후원하고 「몽유도원도」를 낳게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그 공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표 1〉 안평대군의 서화 소장 내용 \*표는 저자

국명 및 시대	필자명	작품명 및 수	비고 (「화기」의 기록에 의함)
동진(1인)	고개지(顧愷之)	刻本水石圖	
당(2인)	오도자(吳道子)	畫佛 2 畫僧 2	소동파가 쓴 찬문이 있음 (上有蘇東坡手題贊)
	왕유(王維)	山水圖 1	
송(6인)	곽충서(郭忠恕)	雪霽江行圖 1 高閣臨江圖 1	송 휘종이 쓴 글씨가 있음 (上有宋徽宗御筆)
	이공린(李公麟)	寧戚長歌圖 1	송 휘종이 직접 제하였음 (宋徽宗御筆題)
	소동파(蘇東坡) *본명: 소식(蘇軾)	眞書湖州印本 1 風竹圖 1 雪竹圖 1 春竹圖 1	
	문여가(文與可) *본명: 문동(文同)	風竹圖 1 筍竹圖 4	

<sup>31</sup> 「화기」에 실려 있는 안평대군 서화 소장품의 내용과 성격에 관하여는 안휘준, 『한국회화사 연구』(시공사, 2000), pp. 285-307; 김홍남, 「안평대군 소장 중국 서예」, 『중국·한국 미술사』(학고재, 2009), pp. 140-173 참조.

송(6인)	곽희(郭熙)	山水圖 2 朔風飄雪圖 1 夏景靑嵐圖 1 水石圖 1 風雨圖 1	春景 1 秋景 1
		江雪圖 1 載鶴圖 1 古木平遠圖 2 一水圖 1 平沙落雁圖 1 江天暮雪圖 1  林亭圖 1 急雨圖 1 鬪牛圖 2	春景 1 秋景 1  }선단(扇團)(부채)
	최의(崔懿)	秋荷野鴨圖 1	
원(21인)	조맹부(趙孟頫)	行書 26 墨竹 2	
	선우추(鮮于樞)	草書 6	
	왕공엄(王公嚴)	木花圖 10 草花圖 4 果木圖 4 荷鷺鷥圖 1 海靑圖 3 桃花鷓子圖 1 鴉鵲圖 1	
	사원(謝元)	海棠折枝圖 1	
	진의보(陳義甫)	海花圖 1 杏花圖 1	
	유백희(劉伯熙) *본명: 유융(劉融)	江亭雪霽圖 1 長林雪滿圖 1 春曉烟嵐圖 1 長江圖 1	
	이필(李弼)	滕王閣圖 1 華清宮圖 1 瀟湘八景圖 各 1 二十四孝圖 12 古木圖 1 懸崖峻閣圖 1	
	마원(馬遠)	長松茅舍圖 1 溪居灌盆圖 1	*남송의 화원

원(21인)	교중의(喬仲義)	染彩山水 8	
	유도권(劉道權)	水墨山水 1	
	안휘(顏輝)	山中看書圖 1 幽林採藥圖 1 畫佛 3	
	장언보(張彦甫) *보(輔)	溪山雨過圖 1 絕岸圖 1 長林倦雲圖 1 水墨雲山圖 1 松石圖 1	倪中有詩 揭傒斯有詩
	고영경(顧迎卿)	靑山白雲圖 1	
	장자화(張子華)	疏林蕭散圖 1 山水圖 1	*당채(唐棧)(字·子華)의 와기(託記)?
	나치천(羅稚川)	雪山圖 1	
	주량(周朗)	戲馬圖 1 牧馬圖 1	
	임현능(任賢能)	牽馬圖 1	
	설창(雪窓) *불명(佛名): 보명(普明)	狂風轉蕙圖 2 懸崖雙清圖 2	이름을 알 수 없음(失其名)
	식재(息齋) *본명: 이간(李衍)	彩竹圖 2 金聲圖 1	
	진재(震齋)	雲龍圖 1	이름을 알 수 없음(失其名) *張欽(明代)?
	철관(鐵關)	山水圖 2 古木圖 2	日本僧
*시대를 알 수 없는 사람들 (不知何時人)	송민(宋敏)	墨竹圖 1	
	왕면(王冕)	墨梅圖 5	각 폭에 시가 있음(各有詩) *원말명초의 화가 (1335~1407)
	엽형(葉衡)	脩竹圖 1	시가 있음(有詩)
	지환(知幻)	墨竹圖 2	
조선(1인)	안건(安堅)	八景圖 各 1 江天晚色圖 1 絕岸雙清圖 1 奔流宗海圖 1 江天一色圖 1 雪霽天寒圖 1 黃鶴樓 1 滕王閣 1 雨後新晴圖 1	

조선(1인)	안견(安堅)	雪霽餘寒圖 1輕嵐匹練圖 1 霽雪舖練圖 1—水圖 1 輕嵐圖 1 江鄉遠翠圖 1 起粟生花圖 1 春雲出谷圖 1 幽雲滿壑圖 1 狂風急雨圖 1 虯龍反走圖 1 長林細路圖 1 銀河倒掛圖 1 絕壁圖 1 墨梅竹 1 水墨白雲圖 1 山水圖 2 蘆鴈圖 1 花木圖 1 長松圖 1	
*이름을 알 수 없는 고화들 (古畫之難名者) (11)		龜 1 梨花 1 杏花 1 松鶴 1 花鵝 1 四牛 1 王勃事實印本 1 後園山水 1 鴉鵲 1 樓閣 1 古木山水 1	
凡 5代 得 35家 山水圖 84 鳥獸草木圖 76 樓閣人物圖 29 書 33 合計 222軸			

#### 4. 조원(造園) : 무계정사와 비해당

‘조원(造園)’이란 말 그대로 정원을 만든다는 뜻이다. 안평대군의 예술과 관련하여 조원을 다른 예술분야들과 더불어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안평대군은 무계정사와 비해당의 정원을 꾸미는 일에 안목 높은 주인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조원도 안평대군이 좋아했던 예술분야의 하나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헌자료와 기록, 관련 유적이 너무나 영성하여 어떤 한계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아쉽게 생각될 뿐이다.

먼저 무계정사(武夷精舍)가 관심을 끈다. 무계정사는 안평대군이 도원을 꿈꾼 1447년보다 3년 후인 1450년에 현재의 부암동에 지은 두 칸짜리 초가집을 말하는데 주변의 산세가 꿈에서 본 도원과 엇비슷했다고 한다. 이는 「몽유도원도」에 보이는 집들이 기와집이 아닌 초가집이고 도원의 전체 경관이 경사진 모습이어서(도 3 참조) 현재 남아있는 무계정사지의 실제 지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수궁이 간다.



도 3 안견(安堅),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1447년, 비단에 담채, 38.6x106.2cm, 일본 덴리대(天理大) 중앙도서관 소장.

본래는 안평대군의 은둔사상을 반영한 고즈넉한 공간이었던 듯하나 차차 측근들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만대흥왕지(萬代興王之地, 만대에 걸쳐 왕이 흥성할 땅)’이라는 오해까지 생겨 수양대군 일파가 경계하는 곳이 되었던 모양이다.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과 함께 집현전 학사로 안평대군과 왕래가 잦았던 이개(李垚, 1417~1456)가 무계정사가 세워진 다음해인 1451년에 「무계정사기(武夷精舍記)」를 남겼다.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계정사는 백악(白岳)의 서북쪽 산록에 있는데 안은 넓고 밖은 은밀하여 스스로 한 구역을 이루었는데 동서는 200~300보 정도이고 남북 반쯤 되는 곳에 계곡물이 흐르고 골짜기 입구에 폭포가 십수 장(丈) 떨어지는데 이곳을 무계(武夷)라고 한다. 이곳에 못이 있어 연꽃을 심었고, 수백 그루의 복숭아나무와 대나무가 주위를 둘러싸듯 했는데 넓고 깊어서 도원동(桃源洞)의 기이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한다. 또 안평대군은 나를 데리고 산보를 하면서 자기가 꿈에 본 도원이

이곳과 방불하다고 했다.<sup>32</sup>

기록의 내용이 소략하지만 자연을 살려 연못과 연꽃, 수백 그루의 복숭아나무들과 주위를 에워싼 대나무들이 주변의 폭포나 산세와 어울려 그윽한 분위기가 나도록 친자연적, 친환경적 조경을 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고요하고 적막한 도가적 분위기가 짙었을 법하다.

무계정사에 관해서는 안평대군이 잡영 5장을 썼고 성삼문(5수)과 서거정(10수)이 도합 차운시 15수를 쓴 바가 있다.<sup>33</sup> 잡영 5장 포함 20수 모두 수사적일뿐 사실성, 구체성, 기록성과는 거리가 있어서 무계정사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시들 속에 이따금씩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보여 관심이 쏠린다. “서리 따라 시들지 않는 대나무 푸르기만 하다.”, “못에 가득 연꽃은”, “계단 위 매화”, “일천 그루 복숭아”, “문 앞엔 다섯 그루 버드나무”, “난초 무성하고”, “정녕 신선이냐 스님 사는 집과 같구나.”, “계단 둘러가는 비류(飛流)”, “창에 의지한 긴 대나무”, “세간 근심 수그러지고 도의 맛이 깊은데”, “골짜기의 문은 잠근 적이 없으니”, “은거하여 이웃 드물기에”, “매화창은 파스하여”, “시령에 서적을 정돈하고”, “정신을 평안하게”, “이 산은 무릉도원과 백중의 형세”, “이끼 낀 자갈길엔”, “자란이 무성하다.”, “제비 나는 못 위에 버들가지 나는구나.”, “정원 안에는 마음껏 영지도 심었도다.”, “뜨락의 푸른 대”, “산 석류는 저절로 붉어”, “오동에 늙은 비”, “국화꽃 고아한”, “산중에 들어가 대은을 이루었나니”, “아지랑이 낀 대나무 밭”, “얇고 푸른 못”, “돌밭 곳곳마다 삼지가 우뚝하다.”, “난간 기대 매 시심이 몽실몽실”, “고상한 분은 일생을 구학에서 보낼 마음”, “귀뚜라미는 혜화 아래 울어” 등의 구절들이 눈길을 끈다.<sup>34</sup> 이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 1) 무계정사는 안평대군의 정치적 아지트이기보다는 일종의 도가적 은둔처로 간주되었다.
- 2) 집 앞 계단 앞으로는 폭포수가 흘러가고 길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다.
- 3) 집의 문은 늘 열려 있었고 난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 4) 집 안에는 얇은 연못이 있었는데 연꽃이 가득하였다.

<sup>32</sup> 李瑄, 『武溪精舍記』, 『死六臣文集』(民族文化社, 1986), pp. 253-256 참조. “……出京城北門 行穿松檜陰森間二里許 攀嶺而上折 而稍西俯見洞府 豁然開朗 頗與人境相殊 卽匪懈堂之精舍在焉 洞奇白岳西北之麓 內寬外密隱隱然自爲一區 東西可二三百步 南北半之溪水流 其中灘石噴沫淙淙 瀉下至谷口懸 而爲瀑者十數丈 所謂武溪者是也 有池植蓮 有圃種苺 有桃數百株 有竹數百叢 周環栽擁……若廣若幽 苑有桃源洞之奇致矣……匪懈堂乃携余散步 觴余而命之曰 吾嘗夢遊桃源矣 及得此髮髯乎 夢中之見 豈造物者 有所待耶……景泰歲辛未秋韓山李瑄謹記……”

<sup>33</sup> 심경호, 『안평(安平)』, pp. 708-721 참조.

<sup>34</sup> 역문과 원문, 위의 주 참조.

- 5) 대나무가 숲(밭)을 이루고 있었고 창가에도 있었다.
- 6) 일천 그루(많은) 복숭아나무가 있었다.
- 7) 집의 문 앞에는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계단위에는 매화나무가 있었다.
- 8) 마당에는 오동나무 이외에 영지, 자단, 국화 난초와 혜화가 심어져 있었다.

각종 나무와 꽃들로 꾸며져 있어서 철따라 변했을 무계정사의 아름답고 그윽한 모습들이 연상된다. 이밖에 안평대군이 1450년 정월 일야(一夜)에 「몽유도원도」를 ‘치지정(致知亭)’에서 다시 펼쳐보면서 지은 시가 제철 옆 푸른 비단에 적혀 있는데(도 1 참조), 이로 미루어 보면 무계정사의 정원에 치지정이라는 정자가 당시에 이미 들어섰던 것으로 믿어진다. 심하게 훼손, 변형되어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재의 무계정사지의 모습이 서글프고 안타깝다. 발굴을 비롯한 철저한 조사와 원형 복원의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비해당(匪懈堂)’은 안평대군이 세종대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당호인 동시에 그가 몸담아 살던 거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그의 거처로서의 비해당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인왕산 기슭에 있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본래는 대단히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지닌 곳이었다.

안평대군은 비해당의 정원을 꾸미고 난 뒤에 특히 아름답고 자랑 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48가지 주제와 장면을 선택하여 우선 그림으로 그리고 화제시인 「비해당 48영(詠)」을 먼저 짓고, 주로 집현전 학사들인 최항, 신숙주, 성삼문, 이개, 김수온, 이현로, 서거정, 이승윤, 임원준 등 9인을 불러 비해당과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의 48영도 읽어보게 한 후 각기 차운시를 짓게 하였다. 이 시들 중에서 최항, 신숙주, 김수온, 서거정 등 다섯 사람의 것들만 남아있고 그 밖의 다른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다. 다섯 명의 남아 있는 작품들은 모두 유영봉교수의 손에 의해 총집성 역주되었다.<sup>35</sup> 이것들을 모두 이 글에서 다시 소개할 여유는 없으므로 편의상 모두가 공통으로 차운한 「비해당 48영」의 제목들만 살펴보기로 하겠다.<sup>36</sup> 그 48가지 작은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sup>35</sup> 유영봉, 「다섯 사람의 집현전 학사가 안평대군에게 바친 詩」(도서출판 다운샘, 2004) 참조.

<sup>36</sup> 유영봉 위의 책에서는 한문 원제목을 먼저, 한글 제목을 그 다음에 제시했으나 최근의 발표에서는 그 반대로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후자를 택하였다. 유영봉, 「비해당 사십팔영의 성립배경」, 안평·안견 현장사업회, 앞의 자료집(이 글의 주2), pp. 24-40 참조.

1. 매화 핀 창가의 밝은 달 [매창소월(梅窓素月)]
2. 대숲 길의 맑은 바람 [죽경청풍(竹逕淸風)]
3. 일본에서 건너온 철쭉 [일본척촉(日本躑躅)]
4. 해남에서 채취한 산호 [해남낭간(海南琅玕)]
5. 섬돌에 나부끼는 작약 [번계작약(翻階芍藥)]
6. 시렁 가득 핀 장미 [만가장미(滿架薔薇)]
7. 눈 속의 동백꽃 [설중동백(雪中冬柏)]
8. 늦은 봄의 모란꽃 [춘후모란(春後牡丹)]
9. 담장 머리의 붉은 살구꽃 [장두홍형(齋頭紅杏)]
10. 집 모퉁이 배꽃 [옥각이화(屋角梨花)]
11. 깊이 잠든 해당화 [숙수해당(熟睡海棠)]
12. 반쯤 핀 산다화 [반개산다(半開山茶)]
13. 난만하게 핀 자미화 [난만자미(爛熳紫薇)]
14. 가볍게 날리는 옥매 [경영옥매(輕盈玉梅)]
15. 근심을 잊게 해는 원추리 [망우원초(忘憂萱草)]
16. 해를 향한 해바라기 [향일규화(向日葵花)]
17. 문 앞의 버드나무 [문전양류(門前楊柳)]
18. 창밖의 파초 [창외파초(窓外芭蕉)]
19. 연무 두른 푸른 전나무 [농연취회(籠烟翠檜)]
20. 햇살 비추는 단풍 [영일단풍(映日丹楓)]
21. 서리를 이기는 국화 [능상국(凌霜菊)]
22. 눈을 이겨내는 난 [오설란(傲雪蘭)]
23. 눈향나무 [만년송(萬年松)]
24. 사계화(四季花)
25. 백일홍(百日紅)
26. 세 가지 빛깔 나는 복사꽃 [삼색도(三色桃)]
27. 금잔화 [금전화(金錢華)]
28. 옥잠화(玉簪花)
29. 거상화(拒霜花)
30. 영산홍(映山紅)

31. 오동잎 [오동엽(梧桐葉)]
32. 치자꽃 [치자화(梔子花)]
33. 이끼 낀 괴석 [태봉괴석(苔封怪石)]
34. 등나무에 감긴 늙은 솔 [등만노송(藤蔓老松)]
35. 가을빛 자랑하는 홍시 [금추홍시(矜秋紅柿)]
36. 이슬 젖은 노란 등자 [읍로황등(浥露黃橙)]
37. 촉 땅에서 온 포도 [촉포도(蜀葡萄)]
38. 페르시아에서 온 석류 [안석류(安石榴)]
39. 분지의 연꽃 봉오리 [분지함담(盆池菡萏)]
40. 가산의 이내 [가산연람(假山烟嵐)]
41. 유리로 이뤄진 돌 [유리석(琉璃石)]
42. 조개로 만든 화분 [차거분(埵瑤盆)]
43. 학이 우는 뜰의 소나무 [학려정송(鶴唳庭松)]
44. 뜰 안의 풀밭에 잠자는 사향노루 [사면원초(麝眠園草)]
45. 물위의 금계 [수상금계(水上錦鷄)]
46. 새장의 아름다운 비둘기 [농중화합(籠中華鴿)]
47. 목멱산의 개인구름 [목멱청운(木覓晴雲)]
48. 인왕산의 저녁 종소리 [인왕모종(仁王暮鐘)]

이들 네 글자로 된 48가지 시적인 제목들에서 다시 알맹이에 해당하는 주제들만 뽑아보면 매화, 대나무(숲), 일본 철쭉, 작약, 장미, 동백, 모란, 살구꽃(나무), 배꽃(나무), 해당화(나무), 산다화(동백나무), 옥매(나무), 원추리(나무?), 해바라기, 버드나무, 파초, 전나무, 단풍(나무), 국화, 난초, 만년송(소나무), 사계화(월계화 나무), 백일홍(나무), 복사꽃(나무), 금잔화, 옥잠화, 거상화, 영산홍(나무), 오동잎(나무), 치자꽃(나무), 늙은 소나무, 감나무(홍시), 등자(橙) 나무, 포도, 페르시아 석류(나무), 연꽃, 화분 등이 먼저 주목된다. 사계절 내내 정원을 아름답게 하는 각종의 꽃들과 꽃을 피우는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정원 이곳저곳에 심어져 있었고 화분들도 빈 곳들을 채우듯 운치 있게 놓여져 있었음이 추정된다. 연꽃들이 자라는 연못이 무계정사에서처럼 마당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다운 식물들 이외에 해남에서 가져온 낭간(琅玕, 산호), 괴석, 유리석도 정원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쌓아서 산 모양을 이룬 가산(假山)도 만들어져 있

있음이 놀랍다. 정원이 대단히 넓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뜰 안의 풀밭에서 잠자는 사향노루”, “물 위의 금계(錦鷄)”, “새장의 아름다운 비둘기” 등의 제목들만 보아도 쉽게 수궁이 된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넓었는지, 정원의 구성이 어떠한지는 알 길이 없다. 비해당의 조원은 안평대군의 취향, 미의식, 설계에 따라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조성되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된다. 비교적 절제되고 자연의 경관을 최대한 차용했던 무계정사의 자연스러운 조원과는 달리 비해당의 조원은 인공적으로 설계된 미의 세계가 주변의 자연과 경합하듯 보여지던 것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비해당 정원에서 바라보던 맑은 남산의 모습이나 저녁 무렵 근처 인왕산의 어느 절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47, 48의 제목들 참조) 아마도 안평대군은 자신이 정원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결국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안평대군은 48가지 주제를 정하면서 매화를 첫째, 대나무를 둘째, 낭간(琅玕)을 셋째로 최우선 순위에 놓았음이 주목된다. 그의 호인 매죽헌(梅竹軒)과 낭간거사(琅玕居士)와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음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안평대군 자신이 직접 「비해당사십팔영서(匪懈堂四十八詠敍)」에서 자문자답식으로 밝힌 내용이 크게 참고된다.

어디서 이 영(詠)을 일으켰는가? 친구가 권해서이다 어째서 사십팔인가? 읊을 만한 것이 사십팔 종이었기 때문이다. 어째서 완전한 수를 이루지 않았는가? 대상이 되는 사물을 전부 거론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어째서 매죽(梅竹)을 먼저 들고 운종(雲鐘, 운종가)을 뒤로 돌렸는가? 가까운 것에서 시작해서 먼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어째서 낭간석(琅玕石)의 부류가 정원의 식물들과 섞여 있는가? 군주가 하사한 것을 영광으로 여겨 그것을 취해 호로 삼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문방(文房)에서 사용하는 것을 읊지 않았는가? 그것들은 조화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물을 읊는 것은 공교로움을 위주로 하거늘, 어째서 사(詞, 언어표현)가 줄렬한가? 우연히 이루었지, 각의(刻意)하여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는 분들은 부디 문채 없음을 용서하여주기 바란다.<sup>37</sup>

이 글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조화옹, 즉 조물주가 만든 자연적인 것들을 중시하고

<sup>37</sup> 曷爲起此詠也? 親友之勸也. 曷爲四十八也? 所可詠者四十八也. 曷爲不成數也? 盡物而止也. 曷爲先梅竹而後雲鐘也? 自近而遠也. 琅玕石之類也, 曷爲雜於庭植也? 榮君之賜而取而爲號也. 曷爲欠詠於文房備用也? 非造化而成也. 詠物主於工也, 曷爲拙於詞也? 偶然而成, 非刻意而成也. 觀者幸恕其無文也.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문 모두 심경호 『안평(安平)』, p. 622 참조.

인간이 만든 문방구를 비롯한 인위적인 것들을 낮추어 본 안평대군의 자연주의 또는 자연중심주의 사상이 간취되는 점이다. 이는 「몽유도원기」에 담긴 안평대군의 도가사상과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안평대군의 이러한 사상이나 철학이 그의 정원꾸미기에 그대로 원칙으로 적용되고 반영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 철쪽을 48영에서 세 번째에 넣은 것은 아마도 집현전 학사로 안평대군 최측근 인물이자 『양화소록(養花小錄)』을 지은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영향이 아닐까 여겨진다.<sup>38</sup> 안평대군이 정원을 꾸밀 때도 강희안의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안평대군이, 앞에서 소개한 「몽유도원기」의 말미에서 "비해당의 매죽헌에서 쓰다"라고 밝혔듯이 비해당의 정원에는 자신의 호를 딴 매죽헌이라는 정자도 세워져 있었음이 유념된다. 이에 대한 언급이 48영 중에 안되어 있는 것은 역시 "조화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해당의 사치스러운 정원 꾸미기는 후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믿어진다.<sup>39</sup>

안평대군은 이제까지 살펴본 시를 중심으로 한 문학, 서예, 회화, 조원 등의 예술 분야들 이외에도 음악과 무용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여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음악은 앞에서 이미 소개하였듯이 일상의 풍류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하고 즐겼던 예술이어서 대군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더구나 가야금을 잘했던 그는 이미 만 11살 때인 1429년에 세종대왕의 명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임영대군과 함께 음악을 배우기도 하였다.<sup>40</sup>

무용도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묶어서 '가무(歌舞)'로 불리기도 할 정도이므로 왕자의 신분으로서 궁궐의 안팎에서 이루어진 각종 공사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풍류를 즐기고 사랑했던 성정의 소유자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여 다루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필자의 학문적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분야들의 전문가들에 의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sup>38</sup> 강희안, 『강희안의 양화소록: 꽃 키우는 별난 선비』(한국고전번역원, 2015) 참조.

<sup>39</sup> 유영봉, 앞의 논문, p. 40 참조.

<sup>40</sup> 심경호, 앞의 책, p. 69, 1143 참조.

## IV. 안평대군의 학술적 기여

안평대군은 예술 각 분야에서의 기여와 더불어 학술분야에서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종래에 가볍게 간주된 측면이 없지 않다. 아마도 안평대군이 예술가적 성향이 강했고 예술분야에서 워낙 크게 기여하고 득명하였기 때문에 학문분야에서의 활약과 기여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의 대상으로 그늘지게 된 때문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안평대군이 호학(好學), 즉 학문을 좋아했음은 이미 앞에서 인물됨을 논하면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가 공식적으로 학문과 접하게 된 것은 만 12세 때인 1430년에 바로 위의 형인 진평대군(수양대군)과 함께 성균관 종학(宗學)에 입학하면서 부터였다고 믿어진다. 그 후 성장한 그는 만권서(萬卷書)를 모은 도서 대수장가가 되었고, 다른 대표적 문사들처럼 『비해당집(匪解堂集)』이라는 문집까지 내기도 하였다.<sup>41</sup> 이 도서들도 그가 애지중지 모았던 서화들처럼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그가 학자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데에는 좋은 증거가 되어준다. 안평대군이 세종조의 최고 학자였던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개, 강희안 등 많은 문사들을 이끌며 온갖 행사와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탄탄한 학문적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안평대군의 학문적인 업적은 대체로 유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그의 모든 업적들을 상론할 입장이 아니므로 개략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1. 편찬

안평대군은 앞에서 대강 살펴본 바와 같이 시를 위시한 문학, 서예, 회화, 조원 등 예술 각 분야에 걸쳐 맹활약을 하면서 다대한 기여를 하는 동시에 학술적으로도 크나큰 업적을 남겼다. 학예일치(學藝一致)의 사상을 철저하게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세종대왕의 문치(文治)를 앞장서서 구현한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안평대군의 학술적 기여는 주로 여러 가지 책들의 편집과 간행(출판)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대군 혼자서 낸 것들 6건과(표2) 수양대군과 함께 낸 32건(표3) 등 모두 38건에 이른다.<sup>42</sup> 심경호교수가 애써서 작성한 표2와 표3에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이 표들에 의거하여 간취되는 몇 가지 사실들을 되도록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sup>41</sup> 『增補文獻備考』卷247, 藝文考 6. 17a(東國文化社, 1971刊, 下卷 p. 904)에 『匪解堂集本朝安平大君瑠著』의 기록이 보인다.

<sup>42</sup> 심경호, 앞의 책, pp. 389-391 및 『안평대군의 생애와 그의 문학적 기여』, 이 글 주2의 학술대회 자료집, pp. 13-23 참조.

표2에 담겨있는 안평대군의 개인적 간행물은 모두 여섯 건인데 만 26세부터 28세까지 3년 간에 낸 것들이다. 3년의 단기간으로 그친 것은 그가 너무 바쁜데다가 표3에서 보듯이 같은 기간을 포함하여 수양대군과 함께 내는 간행물들이 많아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내용면에서 보면 첫 번째 매에 관한 것만 빼면 나머지 다섯 가지는 모두 중국의 당송8대가, 황정견, 백거이, 왕안석, 매요신의 시에 관한 시집이나 책자들이다. 안평대군이 중국의 옛날 시인들과 그들의 시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잘 드러난다. 학문적으로는 시학(詩學)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듯하다.

〈표 2〉 안평대군의 개인적 간행물(심경호교수 작성)

연도	서명	판중, 편찬	비고
1444년(세종26) 12월	「응골방」(應鵠方)	안평대군, 비해당 매죽헌에서 「응골방서」 지음.	
당(2인)	「팔가시선」(八家詩選) (정식명칭은 「당송팔가시선」)	안평대군이 삼체시법에 따라 이백(李白)·두보(杜甫)·위응물(韋應物)·유종원(柳宗元)·구양수(歐陽修)·왕안석(王安石)·소식(蘇軾)·황정견(黃庭堅) 등의 5인·7인 단율과 칠언절구에서 약간 수를 채집, 10권으로 만들었다.	이개·박팽년·성삼문 서문이 있고, 안평대군 서문이 「동문선」에 ‘무명씨’작으로 실려 있다.
	「산곡정수」 (山谷精粹)	안평대군이 황정견 시를 선별하고 평론을 붙임.	최항 「산곡정수서(山谷精粹序)」
1445년(세종27) 6월	「향산삼체법」 (香山三體法)	안평대군이 백거이 삼체시 185수를 편집한 「향산삼체법」에 제서.	초주갑인자본 현전. 호사문고에 서관(西關, 평양) 개간본 1책. 「고사촬요(攷事撮要)」에 따르면 전라도운봉에도 「匪懈堂書」 「香山三體法」 책판.
1445년 12월 19일	「비해당정선반산정화」 (匪懈堂精選半山精華)	안평대군이 왕안석(王安石) 시의 정수를 모아 편하고 서문을 썼다.	선조 연간본 추정 6권 1책이 일본 세이키도문고에 있다.
1446년(세종28) 중춘	「완릉매선생시집」 (宛陵梅先生詩集)	「완릉매선생시집」 (宛陵梅先生詩集)	1446년 중춘 신숙주 「완릉매선생시집서(宛陵梅先生詩集序)」, 1447년 금산 각본으로 이인영 청분실(淸芬室) 구장 2권 1책이 고려대에 있었다고 전함. 후쇄본이 호사문고에 있다.

〈표 3〉 세종 연간 주요 출판물과 수양대군·안평대군의 기여(심경호교수 작성)

연도	서명	판중, 편찬	비고
1421년(세종3) 3월	『자치통감강목』 인쇄 지시		
1422년 10월	『선시연의(選詩演義)』 간행	경자자	
1423년 8월	『자치통감강목』 인쇄본 하사		
1424년(세종6)	『사서대전(四書大全)』 경자자 간행	경자자	
1425년	『노자장자권재구의 (老子莊子膚齋口義)』 간행	경자자	
1427년 7월	『성리대전』	경상감사 최부(崔府) 복각	경상감사 최부(崔府) 복각
1429년	『제유표제주소소학집성』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 간행령	허성(許誠)에게 명하여 복각	
1429년	『사서오경대전』	지방에서 분담 복각	
1434년(세종16) 6월	『자치통감훈의』 (資治通鑑訓義) 편찬 지시	윤회(尹淮) 등 담당	
1434년 7월 신묘	『자치통감강목』 갑인자본 강행령		
1434년 7월	『선시연의』 (選詩演義) 인쇄	경자자	
1435년 9월	『분류보주이태백집』 (分類補註李太白集) 간행		1436년 1월 29일 내사본 현존
1436년(세종18) 2월	『자치통감사 정전훈의』 (資治通鑑思政殿訓義)	갑인자로 간행	
1436년 7월	『자치통감강목훈의』 편찬령	이계전(李季甸), 김문(金汶) 등	
1436년	『제유표제주소소학집성』 (諸儒標題註疏小學 集成)	김문(金汶) 교수(校鬚). 갑인자 간행	

1438년 11월	『자치통감강목사 정전훈의』 간행	진양(수양)대군 대자 글씨를 이용해서 주조한 병진자로 강(綱)을 인쇄, 증소자의 갑인자로 목(目)을 인쇄.	
1438년	『주문공교창려선생집』 (朱文公校昌黎先生集)	최만리(崔萬理)·김빈(金鎭)·이영서(李永瑞)·조수(趙須) 등 편찬, 갑인자 간행	
1439년 6월	『치평요람』(治平要覽) 편찬시작	세종이 정인지(鄭麟趾)에게 『자경편(自警編)』에 필적할 서적을 편집하게 함.	진양대군 (수양대군) 총재.
1442년 (세종24) 3월 1일	『용비어천가』 (龍飛御天歌) 편찬령	권제(權躋)·인지(鄭麟趾)·안지(安止) 등 전달	『용비어천가』의 용비시를 지을 때 안평대군은 성삼문과 임원준(任元濬)을 데리고 참여. 『성종실록』 성종 19년(무신, 1488) 10월 2일 전 도승지 임사홍(任士洪) 상소에 언급. 1442년 6월
1442년 6월	『선시보주』 (選詩補註) 간행	갑인자	1442년 6월 세종은 안평대군당호를 ‘비해’라고 지어줌.
1443년 4월	『찬주분류두시』 (纂註分類杜詩) 편찬령	안평대군 총괄, 신석조(辛碩祖)·강석덕(姜碩德) 등 집현전 관원 6인이 담당.	이 책은 세종 말에 갑인자로 초간되었으리라 추정.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	집현전학사들로 하여금 글자를 만든 원리와 사용방법을 연구하게 함.	
1444년 2월 16일	『운회』(韻會) 번역령	집현전학사들에게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면서, 동궁과 진양대군 및 안평대군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함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으로 이어졌다고 추정됨.
1445년 정월 이전	『진서산독서기를 집상대학연의』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	갑인자본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권 23-43은 평원대군 구장본으로, ‘勤行之堂’ 주인(朱印)이 권30 첫 장 등에 찍혀 있다.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에도 ‘勤行之堂’의 주인이 찍힌 갑인자본 1책이 있다.
1445년 4월 5일	『용비어천가』 원고 올림	권제(權躋)·인지(鄭麟趾)·안지(安止) 등 진전(進箋)	『용비어천가』의 용비시를 지을 때 안평대군은 성삼문과 임원준(任元濬)을 데리러 참여.

1445년(세종27) 10월 27일	「의방유취」(醫方類聚) 감수령	안평대군 총재	
1446년(세종28) 음력 9월 상순	훈민정음 반포	「해례본 훈민정음」 완성	세종 28년 1446 9월 29일 갑오의 「실록」 기사에 나옴. 상수학적 근거는 수양대군 측의 제시가 있었을 듯함.
1447년 2월	「용비어천가」 10권 5책으로 성책		「용비어천가」의 용비시를 지을 때 안평대군은 성삼문과 임원준(任元濬)을 데리고 참여. 이 해 10월 출간.
1448년	「동국정운」(東國正韻) 간행	원고는 1447년 탈고	
1448년 경	「홍무정운역훈」 (洪武正韻譯訓) 시작(1455년 완성)	신숙주·성삼문·조변안(曹變安)·김증(金澄)·손수산(孫壽山) 등이 주음(注音)을 담당하고, 수양대군과 계양군(桂陽君)이 출납 감장(監掌). 세종이 편찬에 간여.	수양대군과 계양군이 출납을 맡았지만, 문서 번역 자체에도 간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1448년(세종30)	「고려사전문」완성	권제(權蹏) 등.	개정된 기전체 「고려사」가 문종 원년(1451년) 8월 완성됨.
세종조 추정	「신간대자부음석문삼주」(新刊大字附音釋文三註) 천자문 부분 주석	갑인자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사도(斯道)문고에 완질.

세종조(1418~1450)의 32년간에는 표3에서 보듯이 최소한 32종의 각종 책자가 출판되었는데 세종대왕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20대의 청년으로 성장한 다음에는 이들 둘째와 셋째 왕자들이 함께 간행사업을 총재(總裁), 즉 총괄하게 하는 일이 잦았다. 세종대왕이 이 두 왕자들의 학문적 역량을 믿고 그들의 학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라고 믿어진다.

안평대군이 조정의 편찬·간행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만 24세였던 1442년에 「용비어천가」의 편찬에 참여하면서 부터였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안평대군은 「선시보주(選詩補註)」와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 등 시문 관계의 도서 발간, 「운회(韻會)」의 번역, 「의방유취(醫方類聚)」의 감수 등을 총재한 것이 확인된다. 시학만이 아니라 음운학, 의학 관계의 책자 간행에도 관여했음이 주목된다.

이밖에 안평대군의 말년이라 할 수 있는 만 32세 때인 1450년(세종32) 11월에는 『소학(小學)』과 불교서적의 인쇄를 주재하였고 자신의 서체를 본뜬 ‘경오자(庚午字)’를 만들기도 하였다.<sup>43</sup> 다양한 학문적 활동과 기여를 안평대군이 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 2. 불사(佛事)

안평대군은, 성리학을 통치이념 및 도덕규범으로 삼고 억불을 표상하던 왕조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숭불(崇佛)하였으며, 불교를 위해 꽤 많은 일을 하였다. 호불(好佛)했던 부왕인 세종대왕의 영향이 컸으리라 믿어진다.

안평대군은 수암대선사(秀菴大禪師)를 스승으로 삼고 대승불교의 근본사상인 반야설을 공부하여 불교사상에 밝았으며 사대부가문 출신 승려인 설준(雪峻)이라는 제자를 두기도 하였다.<sup>44</sup> 그에게는 금강산의 묘덕사(妙德寺)라는 원찰도 있었다.<sup>45</sup> 또 그는 도가사상의 구현체이기도 한 「몽유도원도」에 찬문을 쓴 바 있는 노승 천봉(千峯) 만우(甘露)를 비롯한 승려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행적으로 보면 안평대군은 유불선(儒佛仙) 삼교에 통달했던 인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불교인으로서의 안평대군의 실력은 일찍부터 왕실내외에서 인정을 받았던 모양이다. 이미 만 24세 때인 1442년 3월 24일부터 닷새 동안 흥천사 사리각의 경전회를 주관하였다.<sup>46</sup> 그 후 4년 뒤인 1446년 10월 15일부터 7일 동안 대자암에서 1000여명의 승려들과 절경회를, 1449년 7월 14일에는 원각사에서 중창회를, 1451년 5월 14일에는 대자암에서 안거회를 베풀었으며, 1452년 4월 5일에는 화엄경과 법화경을 강하기까지 하였다.<sup>47</sup> 안평대군은 중요한 불사가 있을 때나 특별한 경우에 종종 금니나 은니로 사경을 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왕실과 관련 있는 사찰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불상을 새로 만들 경우에도 안평대군의 손길이 요구되었다. 세종, 문종을 비롯한 주변으로부터 그의 두터운 불심과 높은 안목이 널리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3 심경호, 앞의 책, p. 1151 참조.

44 위의 책, p. 258, 262 참조. 설준은 김시습에게 불법을 전한 인물이기도 하다(pp. 262-263).

45 위의 책, p. 277 참조. 안평대군은 원찰인 묘덕사의 기둥에 용을 그렸다고 전설처럼 전해지기도 하였던 모양이다.

46 위의 책, p. 1145 참조

47 위의 책, pp. 265-266, 1145-1152 참조.

## V. 맺음말

이제까지 안평대군의 인물됨과 그의 예술 및 학문적 기여를 주마간산식으로 대충대충 짚어보았다. 워낙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안평대군이 관여했던 문학, 서예, 회화, 조원, 편찬, 불사(佛事) 등 다양한 분야들을 살펴보느라 불가피 하였다.

어쨌거나 안평대군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면서 전보다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는 시인, 문필가, 서예가, 화가, 조원설계자, 음악가, 예술애호가 및 후원자, 서화수집가, 장서가, 학자, 편집인 및 출판인, 불교신자이자 재가불자(在家佛者), 불교학자이자 불교후원자였다. 어떻게 한명의 인간이 시문학, 서예, 회화, 음악 등 모든 예술과 학문에 그토록 많은 재주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 35년에 불과한 짧은 생애에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안평대군은 다재다능하고, 넓은 시야와 높은 안목을 겸비하였던 천재적인 인물이었으며 학예일치를 이룬 우리 역사상 최고의 문화인이었다. 이런 인물은 전무후무하다. 우리에게 이런 인물이 잠시나마 다녀간 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간 행운이 아니다. 앞으로 그가 기여했던 각 분야들에 대한 각론적, 심층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주제어(key words)** \_안평대군(安平大君, Prince Anpyeong), 세종대왕(世宗大王, King Sejong the Great, r. 1418–1450), 비해당(匪懈堂, Bihaedang), 성삼문(成三問, Seong Sammun 1418–1456), 박팽년(朴彭年, Pak Paengnyeon), 이개(李垓, Yi Gae), 이현로(李賢老, Yi Hyeonro), 안견(安堅, An Gyeon),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Mongyu down do or *A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무계정사기(武溪精舍記, Mugye jeongsa (gi)), 보한재집(保閑齋集, Bohanjae jip), 화기(畫記, Hwagi), 강희안(姜希顔, Gang Hui'an), 양화소록(養花小錄, Yanghwa sorok),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Eight Masters of the Tang and Song), 조맹부(趙孟頫, Zhao Mengfu), 송설체(松雪體, Pine-Snow (Zhao Mengfu's) calligraphy style), 이선(李選, Yi Seon), 수양대군(首陽大君, Prince Suyang), 성현(成俔, Seong Hyeon), 용재총화(慵齋叢話, Yongjae chonghwa or Collection of Anecdotal Stories Compiled by Yongjae), 비해당(25세)진찬(匪懈堂(25歲)眞贊, Bihaedang jin chan(at the age of 25)), 비해당48영(匪懈堂48詠, 48 Poems on Bihaedang), 학예일치(學藝一致(思想, Unity of Learning and Art), 불사(佛事, Buddhist affairs)

■ 투고일 2018년 12월 10일 | 심사개시일 2018년 12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4일 ■

## 참고문헌

### 1. 사료

朴堧年, 『匪懈堂記』, 『死六臣文集』, 民族文化社, 1986.

李塏, 『武溪精舍記』, 『死六臣文集』, 民族文化社, 1986.

成俔, 『匪懈堂記』, 『慵齋叢話』.

申叔舟, 『畫記』, 『保閑齋集』.

李選, 『英陵六大君伝』.

『端宗實錄』.

『文宗實錄』.

『世宗實錄』.

『增補文獻備考』.

### 2. 한국어 문헌

강희안, 『강희안의 양화소록: 꽃 키우는 별난 선비』, 한국고전번역원, 2015.

고연희, 『安平大君의 夢遊桃源』, 그 착상과 결실 - 『몽유도원기』와 『몽유도원도 제찬』을 통해 본 安平大君 -, 『세종조의 문화융성 :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안평대군과 몽유도원도』 자료집, 2018.

김은미, 『몽유도원도 제찬의 도원관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0집, 1989.

김홍남, 『안평대군 소장 중국 서예』, 『중국·한국 미술사』, 학고재, 2009.

문화재청, 『비해당소상팔경시첩』, 2008.

심경호, 『안평(安平)』, 알마출판사, 2018.

\_\_\_\_\_, 『안평대군의 생애와 그의 문학적 기여』, 『세종조의 문화융성 :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안평대군과 몽유도원도』 자료집, 2018.

안휘준, 『개정신판 안견과 몽유도원도』, 사회평론, 2009.

\_\_\_\_\_, 『조선시대 산수화 특강』, 사회평론, 2015.

\_\_\_\_\_,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安輝濬·李炳漢, 『安堅과 夢遊桃源圖』, 도서출판 예경, 1993.

유영봉 역주, 『다섯 사람의 집현전 학사가 안평대군에게 바친 詩』, 도서출판 다운샘, 2004.

유영봉, 『비해당 사십팔영의 성립배경』, 『세종조의 문화융성 : 안평대군 탄생 600주년 기념 학술대회/안평대군과 몽유도원도』 자료집, 2018.

劉復烈, 『韓國繪畫大觀』, 文敎院, 1969.

이완우, 「안평대군 李瑢의 문예활동과 서예」, 『美術史學研究』 제246·247호, 2005.

이종목, 「안평대군의 문학활동 연구」, 『震檀學報』 제93, 2002, 6.

### 3. 동양어 문헌

鈴木治, 「安堅(夢遊桃源道)について(一)」, 『ビブリア』 第65號, 1977. 3.

## 국문초록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瑤, 1418-1453)은 세종대왕(世宗大王, 재위 1418-1450)이 즉위한 1418년에 대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453년 한 살 위인 친형 수양대군에 의해 사사되기까지 불과 35년간의 짧은 삶을 산 왕자이다. 그는 시·서·화에 모두 뛰어난 삼절(三絶)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장했던 예술가이자 후원자였으며, 육경(六經)에 통달한 학자이자 각종 불사(佛事)를 주관했던 불교전문가이기도 하였다. 학예일치사상(學藝一致思想)을 몸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긴 인물이었다. 그는 만권의 도서를 지녔던 장서가이자 방대한 양의 고대 중국 서화를 모은 서화수집가였다. 이러한 수집품들이 안전과 같은 거장을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된다.

안평대군은 대부분의 문화활동을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개 등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주변의 뛰어난 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학예일치의 경지를 이루고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케 하였다. 안평대군은 일체의 각종 예술적, 학술적 행위와 행사를 주도하고 총괄하였다. 이처럼 안평대군은 세종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융성케 하는데 가장 혁혁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평대군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문학과 서예 분야에서 한두 편의 논문들이 나와 있고, 금년(2018)에 심경호교수가 낸 역저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필자는 안평대군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잡아보기 위해 목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의 인물됨을 우선적으로 짚어보고, 그의 문화적 기여를 문학, 서예, 회화, 조원(造園) 등 예술 각 분야에서의 활약과 공헌을 고찰한 다음, 편찬과 불사(佛事) 등 학술적 기여를 살펴보았다. 총론적, 포괄적 연구를 시도해보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들 각 분야들에 대한 각론적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 Abstract

# Prince Anpyeong(1418~1453), His Character and Cultural Contributions

Ahn, Hwi-Joon<sup>\*</sup>

Yi Yong (1418~1453), better known as Prince Anpyeong, lived a short life, spanning only thirty-five years: the third son of King Sejong the Great (r. 1418~1450) was born in 1418, the very year of the King's accession to the throne, and lived until 1453 when his elder brother Prince Suyang put him to death. Master of the Three Perfections (of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gifted musician and passionate art patron, Confucian scholar well versed in the Six Classics, and Buddhist authority on religious rituals and various affairs – Prince Anpyeong achieved the Unity of Learning and Art. The multifaceted identity of the royal prince further encompasses the identifications as a bibliophile who owned ten thousands books and also as a collector who brought together a massive volume of ancient Chinese paintings and calligraphies. It is readily conceivable that the huge collection played a pivotal role in nurturing the virtuosic artist An Gyeon (15th century).

For the prince the cultural activities were not merely personal diversions: rather, he invited outstanding intellectuals and scholar-officials of Jiphyeon-jeon, the Hall of Worthies, including Seong Sammun, Pak Paengnyeon, Shin Sukju, and Yi Gae; and encouraged to cultivate themselves to the height of the Unity, seeking their cultural contributions. The entirety of the diverse acts and events, artistic and academic, was under the prince's leadership and supervision. It was Prince Anpyeong who made the most glorious contribution to cultural advances in full flourish during King Sejong's reign.

---

<sup>\*</sup> Professor of Art History, Emeritus,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nfortunately, however, Prince Anpyeong has not received much scholarly attention: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a recent tour de force that Sim Gyeongho published this year (2018), along with a couple of articles from the fields of literature and calligraphy, constitutes the whole literature on the historic figure. Aiming to set the course of research and its objective, I have taken the measure of the man above all; considered great service he rendered to a variety of artistic fronts (e.g. literature, calligraphy, painting, and gardening); and examined his academic contributions through the involvements with compilation projects and Buddhist affairs. This article takes a comprehensive and overall approach, and it awaits in-depth future studies that will proceed from the general to the particular.